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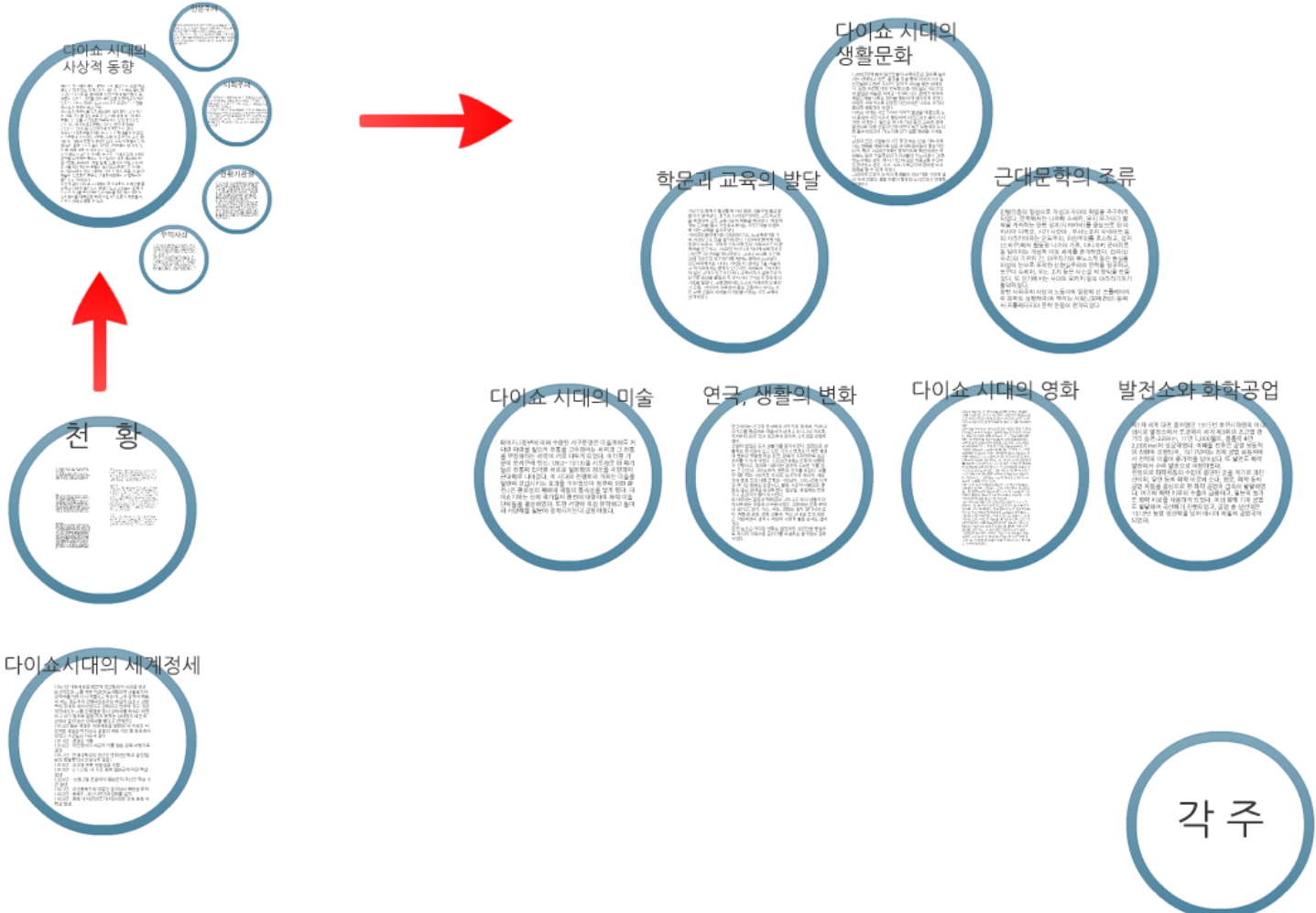
일본문화의 이해

7조 발표준비

손영선
노민진
이상백
김동형
이승재

다이쇼 시대란?

다이쇼 시대로는 1912년 12월 25일 즉위하신 천황의 재위 10주년을 기념하여 1912년 12월 25일부터 1926년 7월 26일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시기를 다이쇼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천황의 재위 10주년을 기념하여 1912년 12월 25일부터 1926년 7월 26일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시기를 다이쇼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천황의 재위 10주년을 기념하여 1912년 12월 25일부터 1926년 7월 26일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시기를 다이쇼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천황의 재위 10주년을 기념하여 1912년 12월 25일부터 1926년 7월 26일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각주

일본문화의 이해

다이쇼 시대의 사상적 동향

메이지 후기에는 국민 개혁이 외세 압력으로 성공 학교 등의 철학 교편을 통해 실현이 지체되고 정치개혁과 공화국 수립은 유물론적 근래의 발달했다. 즉, 대동아 연립국 수립을 앞둔 국외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이념적 갈등이 격화되었다. 다이쇼 말엽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민본주의

민본주의는 민본주의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전황기관설

전황기관설은 전황기관설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다이쇼 시대 생활문화

다이쇼 시대에는 생활문화의 발전이 활발해졌다. 생활문화는 생활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생활문화는 생활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생활문화는 생활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학문과 교육의 발달

각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많은 기술자와 전문가

일본문화의 이해

7조 발표준비

손영선
노민진
이상백
김동형
이승재

다이쇼 시대란?

다이쇼 시대(1912년 12월 25일 제1차 내각이 발족한 이래로 1926년 7월 26일 제12차 내각이 발족한 때까지)는 메이지 시대의 후반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다이쇼 천황이 즉위하여 이 시대를 다이쇼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국내적으로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시기이다. 다이쇼 시대는 메이지 시대의 후반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다이쇼 천황이 즉위하여 이 시대를 다이쇼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국내적으로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시기이다.



7조 발표준비

손영선
노민진
이상백
김동형
이승재

다이쇼 시대란?

다이쇼 시대((たいしょうじだい) 대정시대)란 일본의 다이쇼 시기(1912~1926)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일본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적 조류를 가리킨다. 여기서 다이쇼 시기란, 다이쇼 천황의 통치시기로 메이지 천황이 죽은 뒤, 대를 이어 1912년 7월 천황이 된 메이지 천황의 아들 요시히토가 바로 다이쇼 천황이다. 그러나 병약한 그는 일본 근대사에서 크게 두드러진 활약을 하지 못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자본주의에 가까워지면서 근대국가, 근대사회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며 '1등국', 즉 미유럽과 같은 민주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의식이 높아져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와 개인의 대립도 점차 심화되고, 심각한 현실문제가

다이쇼 시대란?

다이쇼 시대((たいしょうじだい) 대정시대)란 일본의 다이쇼 시기(1912~1926)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일본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적 조류를 가리킨다. 여기서 다이쇼 시기란, 다이쇼 천황의 통치시기로 메이지 천황이 죽은 뒤, 대를 이어 1912년 7월 천황이 된 메이지 천황의 아들 요시히토가 바로 다이쇼 천황이다. 그러나 병약한 그는 일본 근대사에서 크게 두드러진 활약을 하지 못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자본주의에 가까워지면서 근대국가, 근대사회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며 '1등국', 즉 미유럽과 같은 민주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의식이 높아져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와 개인의 대립도 점차 심화되고, 심각한 현실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도 점차 성장해갔다.

다이쇼가 즉위한 이듬해 1913년 2월, 성년 민중이 헌정 수호를 외치며 의회를 포위하고 정부계 신문사와 파출소를 습격하여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가쓰라 다로 일본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내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각을 사퇴했는데, 이를 '다이쇼 정변(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한다.

다이쇼 정변 이후 새로운 사상 및 언론에 대한 탄압, 박해는 겨울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가혹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을 계기로 7월에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 세계대전은 일본에 유례없는 호황을 가져다 주었고, 영미를 아군으로 독일과 정면 대항하게 된 일본은 경제, 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자유주의 기운이 넘쳐흐르고 민간에도 활기가 넘쳤다.

이와 같이 다이쇼 시대의 일본은 점차 근대사회로 달리고 있었는데, 전쟁 종결에 의해 다이쇼 8년 이후 급격히 불경기로 빠져들어 대공황을 초래하여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불안과 계급투쟁의 격화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성장을 방해했다.

다이쇼 12년(1923)의 간토 대지진은 일본 근대화의 중심지였던 수도 도쿄의 삼분의 일을 잿더미로 바꿔버렸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근대 자체의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때마침 제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불황에 따른 국가 간 대립의 격화가 있었고, 더군다나 러시아 혁명의 성공(1917)에 자극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한편 지진 전후의 미국의 활발한 경제원조가 일본인의 생활을 미국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천황

1879년 8월 31일 ~ 1926년 12월 25일)은 일본의 제
12대 천황으로 본명은 요시히토, 어릴 적 칭호는 하
르노미야이다

결혼
병약한 황태자를 빨리 결혼시키자는 목소리가 높

1879년 8월 31일 ~ 1926년 12월 25일)은 일본의 제 123대 천황으로 본명은 요시히토, 어릴 적 칭호는 하 루노미야이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재위하였고 1912년부터 1921년까지 친정을 하였으며 1921년부터 1926년 붕 어할 때까지는 병으로 정사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인 히로히토 왕세자가 사실상 대리청정하였다.

탄생

의민태자와 찍은 사진 1879년 8월 31일, 도쿄의 아오야마 궁전에서 메이지 천황과 그의 측실 야나기하라 나루코 후궁 사이에서 서자로 출생

생후 습진을 겪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이듬해까지 무거운 병을 앓았다. 메이지 천황과 그의 정실인 하루코 황후 사이에서의 자녀가 없는 데다가 측실인 후궁들 소생의 4명의 자녀까지 잇따라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후에 황태자에 올랐으며 어릴 적에는 하루코 황후의 친자 식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가 야나기하라 나루코 후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황태자 시절

어린 시절 1880년, 화족 출신의 나카야마 다다요시의 양자가 되었으나 1885년 3월에 파양된 후 다시 아오야마로 돌아와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887년, 부황 메이지 천황의 정실인 적모 하루코 황후의 정식 양자가 되었고 같은 해 9월, 학습원에 입학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유급되는 일이 있었으며 학습원의 어려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1889년, 아타미에서 정양을 하기도 하였다. 1889년, 입태자례를 치렀으나 이수계의 교과를 어려워하는 등 학습원에서의 학습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자 결국 중퇴를 선택, 아카사카 별궁에서 프랑스어, 유교학, 한문 등 개인 교습을 받았다. 그러나 이도 곧 여의치 않았으므로 메이지 천황은 새로운 동궁보도에 방계 왕족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를 임명하였고 이후 요시히토는 다케히토를 벗 삼아 학업을 계속하였다.

결혼

병약한 황태자를 빨리 결혼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00년 5월 10일, 요시히토는 화족 출신의 구조 사다코와 혼인했다. 그 뒤에 좋지 않았던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갔다. 다이쇼 천황은 후궁을 거느리지 않았으며, 일부일처제의 모범이 되었다.

천황 시절

즉위 1912년 7월 30일, 부황 메이지 천황이 죽자 황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에도 병약함과 생각한 것을 곧바로 언동에 나타내는 버릇 등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란 인식이 정계를 비롯한 일본 각계로 퍼져 나갔으며 때문에 후에는 존재감이 없는 천황(のい)으로 불렸다. 1917년경부터 공무로 받은 스트레스와 심로 등이 겹쳐 다시 건강이 악화, 급기야 1921년에는 황태자 히로히토가 대리청정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은 그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사망

1926년 12월 25일 새벽 1시 25분 경 하야마() 황실 별장에서 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천황의 유해는 전례를 깨고 영구차로 도쿄 서쪽 근교의 하치오지 시에 있는 타마 어릉에 매장되었다.

다이쇼시대의 세계정세

1907년 대한제국을 방문해 의민황태자 이은을 만난 요시히토는 그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으며 이튿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의 한국어 학습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는 확실치 않으나 천황 즉위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작고 직전 의민태자가 그를 문병했을 당시 한국어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병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어 같지 않은 한국어를 했다고 전해진다.

1910년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 자국의 식민지로 삼았으며 다이쇼 천황의 재임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14년 : 경원선 개통

1916년 : 의민황태자 이은의 비를 일본 왕족 이방자로 결정

1917년 :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연희전문학교 설립/이

1907년 대한제국을 방문해 의민황태자 이은을 만난 요시히토는 그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으며 이튿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의 한국어 학습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는 확실치 않으나 천황 즉위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작고 직전 의민태자가 그를 문병했을 당시 한국어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병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어 같지 않은 한국어를 했다고 전해진다.

1910년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 자국의 식민지로 삼았으며 다이쇼 천황의 재임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14년 : 경원선 개통

1916년 : 의민황태자 이은의 비를 일본 왕족 이방자로 결정

1917년 :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설립(일본의 동일학력이 인정되지 않음)

1918년 : 조선에 곡류 수용령을 시행

1919년 : 3·1 운동. 이 기간 중에 일본군에 의한 학살 발생

1920년 : 10월 2일 훈춘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사건 발생

1921년 : 조선총독부에 의열단 김익상이 폭탄을 투척

1922년 : 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

1923년 : 관동 대지진(간토 대지진)으로 인한 관동 대 학살 발생.

다이쇼 시대의 사상적 동향

메이지 후기에는 국민 개학이 거의 달성되어 상급 학교로의 진학 희망도 강해지면서 국민의 지식욕도 왕성해져 잡지나 신문 등 출판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즉,

메이지 후기에는 국민 개학이 거의 달성되어 상급 학교로의 진학 희망도 강해지면서 국민의 지식욕도 왕성해져 잡지나 신문 등 출판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즉, 대중이 정치적 자각을 갖는 국민으로 변화하고자 하여 정치적 저변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민주주의적 지향을 ‘다이쇼 민주주의’라고 한다.

다이쇼 민주주의를 정치제도에서 살펴보면 그 전까지의 관료·군인을 중심으로 한 정권에 대해 제 1차 호헌운동(1912)을 시작으로 하라타카시 정당내각 성립(1918), 제 2차 호헌운동(1924), 양당내각제도(1924~1932) 등 정당내각제가 확립되어갔다.

사상이나 사회운동 면에서는 선거권 확대를 위한 보통선거운동과 여성참정권운동, 노동자·공산당의 수립 등 개인의 자유와 평화가 주장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선두에 섰던 젊은 지식인들의 생각의 근본에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 ‘사회’의 우위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외교적인 면에서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종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사회제도에서는 남녀평등, 부라쿠민 차별 철폐,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쟁취하려는 운동이 일어났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자유교육의 쟁취, 대학의 자치권 쟁취 운동, 미술 단체들의 정형화된 문부성 전람회파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이쇼 시대에는 국가·사회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움직임이 분출되었고 그것들이 총체가 되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정치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대폭으로 확대한 결과적으로 민주화를 촉진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민본주의

민본주의

메이지 헌법 체제 하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수 없었던 요시노 사쿠조는 ‘데모크라시’를 ‘민본주의’로 번역하였고, ‘민본주의’의 발전은 단계별로 구분했다. 첫 단계는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하는 의원내각제 확립, 둘째 단계는 보통선거제 도입, 셋째 단계는 보통 선거제라는 정치적 평등 아래에서 사회 정책 등에 의한 경제적 평등이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타 지역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쳐, 1918년~1919년에 도쿄대와 와세다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단체가 생겨났다.

1920년 12월 사카이 도시히코와 야마카와 히토시 등의 마르크스 주의자와 오스기 사카에 등의 무정부주의자와 함께 사회주의자를 포괄하여 '일본 사회주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하라 내각은 이런 개혁 세력에 대해 흑독하게 대처했고, 치안 경찰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천황기관설

미노베 다쓰키치 교수()는 천황주권설을 비판하고 전황
기관설을 주장했다. 천황기관설은 천황이 국가통치권
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통치권은 국가에 속하며 천황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주장하

미노베 다쓰키치 교수()는 천황주권설을 비판하고 천황 기관설을 주장했다. 천황기관설은 천황이 국가통치권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통치권은 국가에 속하며 천황은 그 최고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가 통치권의 주체라는 주장으로 천황의 권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메이지 말기 이래 공인되었던 천황주권설을 부정하는 것이며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그의 헌법 해석의 특징이다.

나아가 미노베는 천황의 보필기관인 내각에 행정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내각이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수의 강력한 리더십과 당원의 동지적 결속을 전제로 하는 내각의 연대책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당 내 각제를 지지함과 동시에 천황 대권을 명분 삼는 군부와 우익 세력을 견제하려 했고, 이 이론은 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내각제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익사상

차 대전 이후 천황 지배의 절대성과 국체 옹호

제 1차 대전 이후 천황 지배의 절대성과 국체 옹호 등의 '국수 보존'을 주장하는 전통 우익 외에 새로운 우익이 등장했다. 그들은 반기성정당, 반자본주의를 핵심 기치로 내걸고 국가주의적 혁신을 내세우는 파시즘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들의 사상은 1919년 첫 출판 이후 지속적으로 유포되었고 대표 지지자들은 군비축소의 흐름과 협조외교에 반감을 갖고 있던 청년 장교들이었다. 또한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과 노동자, 도시 하층민들에게도 스며들어 이들로 하여금 정당정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훗날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는데 영향을 끼쳤다.

다이쇼 시대의 생활문화

1900년대에 들어 일본인들의 교육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태였고 언론, 출판물 등을 통해 이전시기의 일본인들보다 많은 사회적, 정치적 지식을 쌓은 상태였다. 또한 꾸준한 대외 무역량의 증가와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들로 하여금 더더욱 사회, 경제적 이익의 배분문제를 다루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수적으론 서자화 시기이시으 다이쇼 시대이

02 도시

1900년대에 들어 일본인들의 교육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태였고 언론, 출판물 등을 통해 이전시기의 일본인들보다 많은 사회적, 정치적 지식을 쌓은 상태였다. 또한 꾸준한 대외 무역량의 증가와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들로 하여금 더더욱 사회, 경제적 이익의 배분문제를 다루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성장한 시민의식은 다이쇼 시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다이쇼 시대는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배경으로 도시 중심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시민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시대였다. 일본은 제 1차 대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각종 산업이 번창하면서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흡수되었으며, 대도시에 인구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관청과 민간 기업들의 기구 확장 또는 신설, 대도시에서는 양복을 제복으로 입은 화이트칼라층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192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여성들도 늘어 직업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졌다. 또한 대도시에는 전차,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등장하였고 전등, 가스, 수도가 보급되어 편리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가 소수의 독점물이 아닌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민중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도시문화가 번영한 시대이다.

학문과 교육의 발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기술자와 봉급생활자가 생겨났다. 정부는 1918년 대학령, 고등학교령을 제정하여 고등 교육기관의 확충을 꾀하였다. 여성에게도 문호를 열고 사립학교에서는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화학연구소, 도쿄제국대학 부속 지진연구소 등을 설치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후쿠다 도쿠조, 가와카미 하지메 등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1920년부터 다카바타케 모토유키가 (자본론)의 번역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모리토 사건에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기술자와 봉급생활자가 생겨났다. 정부는 1918년 대학령, 고등학교령을 제정하여 고등 교육기관의 확충을 꾀하였다. 여성에게도 문호를 열고 사립학교에서는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화학연구소, 도쿄제국대학 부속 지진연구소 등을 설치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후쿠다 도쿠조, 가와카미 하지메 등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1920년부터 다카바타케 모토유키가 (자본론)의 번역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모리토 사건에 의해 사회주의 연구에 대한 제약도 명확히 드러났다.

인문과학에서는 니시다 기타로가 (선의연구를)저술하고 역사학에서는 중국사 연구자인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일본 고대사 연구자인 쓰다 소우키치가 실증주의적 연구로 성과를 올렸으며, 야나기타 구니오가 민속학의 기초를 쌓았다. 교육면에서는 스즈키 미에키치의 글짓기 운동, 기타하라 하루슈의 동요 운동이나 시나노 자유 교육 운동이 아이들의 개성을 키우는 자유 교육이 전개되었다.

근대문학의 조류

인텔리층의 형성으로 개성과 자아의 확립을 추구하게 되었다. 문학에서는 나쓰메 소세키, 모리 오가이가 활약을 계속하는 한편 잡지(시라카바)를 중심으로 한 아리시마 다케오, 시가 나오야, 무샤노코지 사네아쓰 등의 시라카바파는 인도주의, 이상주의를 호소하고, 잡지

인텔리층의 형성으로 개성과 자아의 확립을 추구하게 되었다. 문학에서는 나쓰메 소세키, 모리 오가이가 활약을 계속하는 한편 잡지(시라카바)를 중심으로 한 아리시마 다케오, 시가 나오야, 무샤노코지 사네아쓰 등의 시라카바파는 인도주의, 이상주의를 호소하고, 잡지(스바쿠)에서 활동한 나가이 가후, 다니자키 준이치로 등 탐미파는 개성적 미의 세계를 전개하였다. 잡지(신사조)의 기쿠치 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등은 현실을 이성의 눈으로 포착한 신현실주의의 문학을 창조하고, 도쿠다 슈세이, 우노 고지 등은 사소설의 양식을 만들었다. 또 단가에서는 사이토 모키치 등의 아라라기파가 활약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사상과 노동자의 입장에 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도 성행하여(씨 뿌리는 사람), (문예전선) 등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다이쇼 시대의 미술

메이지()정부에 의해 수용된 서구문명은 미술계에도 커다란 파란을 일으켜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과 그 전통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카쿠라 덴신(1862~1913)을 지도자로 한 화가들은 전통에 입각한 새로운 일본화의 창조를 지향하며

메이지()정부에 의해 수용된 서구문명은 미술계에도 커다란 파란을 일으켜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과 그 전통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카쿠라 덴신(1862~1913)을 지도자로 한 화가들은 전통에 입각한 새로운 일본화의 창조를 지향하며 근대화로 나아갔다. 이 시대의 전람회의 개최는 미술을 일반에 보급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정부에 의한 관전()은 관료성의 폐해와 작품의 통속성을 낳게 했다. 다이쇼기에는 신예 작가들이 관전에 대항하여 재야 미술단체들을 결성하였다. 또한 서양에 직접 유학하고 돌아와 서양화를 일본에 정착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연극, 생활의 변화

연극에서는 신극의 분야에서 시마무라 호게쓰, 마쓰이 스마코를 중심으로 예술좌가 생겨나 오사나이 가오루, 히지카타 요시 등이 도쿄에서 쓰키지 소극장을 창립하였다.

산업의 발달은 도시 생활자를 증가시켰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회사원이 늘고 신문 기자나 변호사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관료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문화의 대중화가 지해되고 키오르 대표되는 자지야 100마 브르너

연극에서는 신극의 분야에서 시마무라 호게쓰, 마쓰이 스마코를 중심으로 예술좌가 생겨나 오사나이 가오루, 히지카타 요시 등이 도쿄에서 쓰키지 소극장을 창립하였다.

산업의 발달은 도시 생활자를 증가시켰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회사원이 늘고 신문 기자나 변호사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관료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문화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킹으로 대표되는 잡지와 100만 부를 넘는 큰 신문이 나타났으며, 엔폰도 인기를 모았다. 이를 무대로 하는 나타자토 가이잔, 요시가와 에이지, 에도가와 란포 등의 대중 문학도 나타났다. 1925년에 시작된 라디오 방송도 보급되고, 활동 사진의 이름으로 영화도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다. 일요일, 휴일에는 번화가나 온천가가 붐비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빌딩과 백화점이 나타나고 도시 생활자의 의식주에는 서양식이 수용되었다. 교회에는 문화 주택이 생기고, 전기, 가스, 수도, 전화도 점차 정비되어 갔다. 백화점 점원, 전화 교환수, 버스 안내양 등의 새로운 직업여성이 생겨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 분야도 넓어졌다.

한편 농촌은 커다란 변화는 없었지만 청년단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유스런 분위기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다이쇼 시대의 영화

일본에 영화기구가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896년 11월 19일이다. 다카하시신지가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를 수입하여 고베의 왕실 별장에서 고마쓰미야 황족에게 소개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영화 공개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 영화계는 1910년대에 들어와 여태까지의 단편적인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영화의 원형은 주로 신파극과 가부키 극으로 대별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최초의 메이저 컴퍼니이다. 일본의 초기 극영화들은 대체로 에도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연극인 가부키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는데, 가부키식의 시대극은 구극이라고 불렸다. 반면의 가부키의 고전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취향에 맞도록 변형된 현대극도 등장하였는데 이를 '신파극'이라고 한다. 신파극의 유행은 19세기 말 서구의 신사상이 밀물처럼 흘러들어와 연애의 자유,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전도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에 일본의 각 도시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일본에 영화기구가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896년 11월 19일이다. 다카하시신지가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를 수입하여 고베의 왕실 별장에서 고마쓰미야 황족에게 소개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영화 공개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 영화계는 1910년대에 들어와 여태까지의 단편적인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영화의 원형은 주로 신파극과 가부키 극으로 대별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최초의 메이저 컴퍼니이다. 일본의 초기 극영화들은 대체로 에도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연극인 가부키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는데, 가부키식의 시대극은 구극이라고 불렸다. 반면의 가부키의 고전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취향에 맞도록 변형된 현대극도 등장하였는데 이를 '신파극'이라고 한다. 신파극의 유행은 19세기 말 서구의 신사상이 밀물처럼 흘러들어와 연애의 자유,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전도되면서 전통적 봉건성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새로운 풍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12년에 제작된 '춘풍각'과 '사람의 꽃' 등은 전형적인 신파극 양식을 갖춘 영화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영화 문화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독특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1910년대에는 영화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예술로서 발전한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전에 지식층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영화는 점차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외국의 문화현상으로서 신극이나 문예의 영향을 받으며 정착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초기로 가면서 리얼리즘 영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1923년에 만들어진 스즈키 겐사코 감독의 작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영화는 당시 제작된 영화들과는 다른 현대극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들로서 구시대적 산물인 봉건적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상의 기운을 도입하려고 한 영화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미국식의 모던한 영화도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낡은 소재를 탈피하여 평범한 인간상을 토대로 서민의 삶, 즉 일반적인 리얼리즘에 관심을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까지 새로운 영화를 지향하는 아방가르드 운동이 벌어졌다.

발전소와 화학공업

제1차 세계 대전 중이었던 1915년 후쿠시마현의 이나와시로 발전소에서 도쿄까지 세계 제3위의 초고압 장거리 송전(228km, 11만 5,000볼트, 총출력 4만 2,000kw)이 성공하였다. 이때를 전후로 공업 원동력의 전환이 진행되어, 1917년에는 전체 공업 원동력에서 전력의 비율이 증가력을 넘어섰다. 또 발전도 화력

제1차 세계 대전 중이었던 1915년 후쿠시마현의 이나와시로 발전소에서 도쿄까지 세계 제3위의 초고압 장거리 송전(228km, 11만 5,000볼트, 총출력 4만 2,000kw)이 성공하였다. 이때를 전후로 공업 원동력의 전환이 진행되어, 1917년에는 전체 공업 원동력에서 전력의 비율이 증가력을 넘어섰다. 또 발전도 화력 발전에서 수력 발전으로 이행하였다.

전쟁으로 화학제품의 수입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과인산석회, 유안 등의 화학 비료와 소다, 염료, 화약 등의 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달하였다. 여기에 화학 비료의 수출이 급증하고, 일본의 농가도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계 공업도 발달하여 국산화가 진행되었고, 공업 총 생산액은 1918년 농업 생산액을 넘어 아시아 제일의 공업국이 되었다.